

금호타이어,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A-

한국기업평가는 금호타이어의 제6회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A-로 평가했다.

한기평은 금호타이어에 대해 내수시장에서는 과점적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, 수출시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.

한기평은 “금호타이어는 사업이 안정적이며, 현금창출력도 우수하지만 환율 하락 및 원재료가 급등에 의한 수익성 저하 가능성 및 국내외 투자부담이 내재하고 있다”며 “저하되는 수익성은 생산효율성 향상을 통한 원가 경쟁력 제고와 적절한 판가 인상을 통해 일부 만회가 가능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또 투자부담도 우수한 재무구조와 현금창출력 감안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.

<화학저널 2006/09/29>